

다쏘시스템, 솔라임펄스와 태양열 비행기로 세계 일주 기록 갱신에 도전

- 2015 년 본격적인 비행에 나서는 태양열 비행기 솔라임펄스 2 프로젝트 진행
-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사용해 계획부터 설계 및 구현까지 통합

서울, 2014 년 12 월 1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이 솔라임펄스(Solar Impulse)와의 기술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공개적으로 태양열 비행기의 세계일주 프로젝트의 기록 갱신에 나선다.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설계된 솔라임펄스 2 는 지난 4 월 9 일 공개된 후, 6 월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솔라임펄스는 솔라임펄스 2 제작 및 디자인, 태양광 유효성 테스트 등에 다쏘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인 카티아(CATIA)와 에노비아(ENOVIA)를 사용했다. 솔라임펄스 1 이 태양에너지만을 이용해 장시간 비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실험해보기 위한 테스트 베드였다면, 솔라임펄스 2 는 미션 수행 후 2015 년 본격적인 비행에 나선다.

솔라임펄스 2 개발에는 동체 및 날개 설계부터 엄격한 중량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재 실험까지 여러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안전성, 편안함과 함께 명령 접근성까지 제공해야 하는 조종석을 설계하는 것은 정교한 디자인 및 관리 툴을 필요로 했다. 솔라임펄스 팀은 2006 년부터 다쏘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해왔다.

솔라임펄스의 공동설립자 및 CEO 이자 조종사인 안드레 보쉬버그(André Borschberg)는 “세기를 넘어서, 개척자들은 끊임없이 비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왔다. 인류 최초의 비행부터 열기구, 우주 탐험 등도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같은 21 세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엔지니어링 및 연구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솔라임펄스의 창립자이자 조종사인 베트랑 피카드(Bertrand Piccard) 회장은 “우리는 솔라임펄스가 추구하는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검증된 최첨단 산업 솔루션이 필요했다. 다쏘시스템과 만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이유다”라며 “경험의 관점은 긴 비행을 위한 비행기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로 했던 정확히 그것이었다. 조종사들은 한번에 장장 5 일동안을 조종석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추진력에서부터 전자공학, 승무원 시설까지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통합되고 완벽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셸 텔리에르(Michel Tellier) 다쏘시스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사장은 “슬라임펠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슬라임펠스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다. 대체 청정 에너지가 극단의 상황에서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쏘 시스템의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솔루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3ds.com/aerospace-defense> 에서 확인 가능하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9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코리아
최명주 부장
Myoungjoo.CHOI@3ds.com

민커뮤니케이션
정민아 실장 / 박경동 차장
TEL. 02-566-8898
pr1@mincomm.com